



접경지역지원법 11년만에 특별법 격상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서 가결 ... 고성지역 발전에 큰 도움 기대

3개 법률 우선 적용·남북협력기금 사용 등 과제

고성군 등 도내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법 격상이 11년만에 성사돼 고성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2면〉

그러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하는 것은 성사되지 못했으며, 남북협력기금 사용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인원 299명 가운데 210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98표, 반대 7표, 기권 5표로 ‘접경지역지원법’의 ‘특별

법’ 격상 법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접경지역의 범위를 민통선 이남의 마을 단위로 규정하던 것에서 민통선 이북을 포함하는 시·군 단위로 확대함으로써 정부예산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하는 ‘접경지역정책심의회’를 행안부 소속에서 국

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했으며,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를 명시했다.

이밖에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군부대에 우선 납품하도록 하고, 접경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모체가 된 접경지역지원법은 지난 2000년 접경지역 출신인 송훈석 국회의원(속초-고성-양양)과 고 이용삼 국회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이 주도해 발의했으며, 그동안 총선 등에서 특별법 격상이 주요 이슈로 다뤄져오다가 이번에 여야 합의로 11년만에 성사됐다.

최광호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성지역 각 읍면과 마을별로 우리의 미풍양속인 효 사상을 실천하는 따뜻한 행사가 열려 지역 어르신들이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사진은 지난 6일 현내면복지회관에서 열린 경로잔치 모습.

동자승 함정 견학

속초해경 함정공개 행사 인기



속초해경경찰서(서장 김용범)가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 바다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해 연중 운영하는 함정공개 행사가 인기다. 속초해경은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해양경찰 함정 부두에서 신홍사 동자승 6명을 대상으로 경비함정 견학 행사를 실시했다.

최광호 기자

“어르신들 만수무강 하세요”

5월 가정의 달 맞아 경로잔치 잇달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성지역 각 읍면과 마을별로 우리의 미풍양속인 효 사상을 실천하는 따뜻한 행사가 열려 지역 어르신들이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고성군 5개 읍면 주민자치위원

회와 새마을부녀회는 8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2일부터 8일까지 각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을 초청해 흥겨운 위안잔치를 마련하고 푸짐한 중식을 제공했다.

이번 어버이날 경로잔치는 2일 토성면 용암1리를 시작으로, 3일

은 거진을 대대리, 4일은 거진읍과 간성읍, 죽왕면 운봉리·신평2리에서 열렸다.

이어 5일에는 토성면 용암2리, 6일은 죽왕면과 토성면 천진2리, 현내면, 7일은 토성면 아야진리, 8일은 토성면 성대2리·성천리와 거진읍 자산리·오정리·산북리에서 열렸다.

박승근 기자

알림

다음호 신문 한주 쉽니다

고성신문 홈페이지 구축과 구독자 정비작업을 위해 다음호 신문(제15호) 제작이 한주 늦춰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신문 제15호는 5월23일자로 발행됩니다. 이점 독자 여러

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23일 홈페이지 개통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홈페이지 이용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다음호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고성신문